우주에 버려진 우주인의 두려움

(잠언 28:1~28)

1.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 같이 담대하니라
2.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3.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 같으니라
4.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5.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우주에 버려진 우주인의 두려움>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우주에 버려진 우주인의 두려움'
우주유영(宇宙游泳)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주왕복선이나 위성 등이 고장 나면 우주비행사들이 우주선 밖으로 나가 동체를 수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주복을 입고 우주공간으로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임무 전문가(Mission Specialist)라고 합니다. 이들이 일을 할 때에 우주에 떠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주유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밖에서 일하는 동안 우주왕복선이 잘못되어서 폭발이라도 일어난다면 우주에 버려지게 됩니다. 폭발에 직접 닿지는 않았을지라도 돌아갈 우주왕복선이 없어져버린 것입니다. 이때에 우주에 버려진 이 우주인의 심리상태가 어떨지 상상해봅니다.
우주에는 태양빛을 흡수하는 대기층이 없기 때문에 태양빛을 받는 곳은 120도까지 올라가고, 반면 햇빛이 차단되는 그늘 쪽은 영하 100도입니다. 무한한 우주는 인간생존에 반하는 극한 상황의 연속입니다. 가끔 우주에 관한 영화를 보면 살아남기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는 모습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미련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우주를 떠돌게 된 우주인 같기 때문입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악인은 단순히 사회적 범법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사람을 일컫습니다. 이 악인들 속에 있는 두려움을 주제로 삼고 있는데 이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1절을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 같이 담대하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라는 말은 외부에 나를 위협하는 요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나를 죽이려 하거나 잡으려 하지 않는데도 악인은 도망을 칩니다. 지난 설교에서 터무니없는 믿음의 결과 어처구니없는 삶의 상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실 수 있는 손잡이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미련한 자이고 악인입니다. 이들이 도망을 가는 이유는 터무니없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는 두려움이 발생합니다.
이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우주인이 생존에 반하는 극한의 상태에서 무한한 우주에 버려졌을 때 느끼는 두려움과 비견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울에 비치는 모습을 보면서 ‘나’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크기의 마음 공백이 있도록 지음 받았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울에 비치지 않는 하나님 크기의 마음 공백을 품고 있는 모습이 진정한 나입니다.
한편 이 마음의 공백에 자아의식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의식의 알맹이가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될 자리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크기의 마음 공백에 자아의식이 떠돌게 되면 우주에 버려진 우주비행사가 갖는 다급함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우주는 무한한 공허와 흑암의 공간입니다. 120도로 올라갔다가 다시 영하 100도로 떨어지는 극한의 상황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러한 상태에 놓인 것과 같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모든 두려움의 근원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두려움과 도망가는 것을 연관 짓고 있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 같이 담대하니라’라고 하였습니다.
대체 악인은 두려움이 생김으로 인해 무엇으로부터 도망을 가는 것이고, 반대로 의인은 무엇 대해서 사자같이 담대하다는 것일까요?
바로 현재 주어진 상황입니다. 악인은 두려움 때문에 늘 현재의 상황으로부터 도망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에 버려진 우주인의 두려움을 우리의 마음에 빗대어 생각해봅니다. 하나님 크기의 마음 공백에 자아의식이 떠돌고 있습니다. 무한한 우주에 버려진 우주인의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인간이 에덴 밖으로 쫓겨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크기의 마음 공백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데 하나님과 끊어졌습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마음은 마귀의 꾐에 넘어가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마구잡이로 붙잡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마음 채움 거리를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마음을 채우려고 하면 잠자고 일어나 눈을 뜰 때마다 두렵습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주어진 상황은 무엇 하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모셔야 될 마음 공백을 채울 수

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벗어나려합니다. 이 상황이 내 마음을 채울 수 없음을 깨닫는 순간 염려 근심 걱정이 생기고 화가 나고 시기가 생겨납니다. 우주 속에 버려진 우주인의 두려움으로 다급하게 이 세상 것으로 마음 공백을 채울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현재 나의 상황에서는 무슨 수를 써도 만족할 수 없음을 느끼기에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오로지 지금 주어진 상황을 벗어나는 것만이 목표가 됩니다. 마음을 채울 확실한 방법은 모르지만 일단 지금 상황으로 채울 수 없다는 것만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의 유전적 습성이자 체질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 만족이 지속되지 않음은 누구나 경험하는 바입니다. 결혼한 지 3년쯤 되면 배우자로 인해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마음을 채우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녀에게 의존합니다. 그런데 자녀 그 자체로 마음을 채울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번에는 자녀의 형통으로 도망을 칩니다. 자녀가 일류대학에 들어가면 마음이 채워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망의 삶을 사는 동안에는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녀와 함께 있는 순간에도 기쁨과 만족이 없기에 빨리 자녀와 함께 어디로든 도망을 쳐야만합니다. 그 목표가 일류대학이라는 지점으로 정해지고 이어서 또 일류직장으로 정해집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은 현재의 상황에서 항상 도망을 칩니다.
두려움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크기의 마음 공백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다급한 나머지 이 세상 것으로 하나님 크기의 마음 공백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세상 것을 손에 쥐면 두려움이 없어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세상의 어떤 가치로도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모시도록 만든 공백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무언가를 이룬 것 같아도 또 다시 두려움이 생겨나고 또 도망을 가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도망 다니다가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도망을 치지 않으니 현재 상황에 안주하는 것이 의인의 행동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으로 만족한 상태에서 주어진 상황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했기에 마주하는 상황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펼쳐지고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입니다. 의인 곧 지혜자는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하늘에 계신 영이신 하나님만으로 마음 공백이 채워질 수 있음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귀로 인해서 생겨나게 된 이 세상가치로 만족을 얻으려는 유전적 체질을 일천 번제로 드리는 자들입니다. 자신을 죽이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떻든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두렵지 않고 돈이 있어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의존 또한 두려움의 결과로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미 있는 돈으로 채워지지 않으니 더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십억 벌면 만족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백억을 향해서 도망칩니다. 터무니없는 믿음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은 돈이 있거나 없거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의 양상이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건강이 없어질까 두려워하고 돈이 없어질까 명예가 없어질까 두려워합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두려움의 원인은 하나입니다.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으로 배불러서 이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극복한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상황에도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게 되자 마음이 배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에서 산헤드린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하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자 다 도망쳐서 문을 걸고 숨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성령님을 통해 마음의 배에 하늘이 가득 차게 되자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 마음의 배가 부를 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돈이 없어서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일류대학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배부르지 않고 굶주렸기에 두려워하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는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에 나타나는 모습이 나오는데 타인을 학대하게 됩니다.

2절을 보면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주관자'는 통치자로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자입니다. 통치자는 통치 받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억압하고 학대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치자가 피통치자에게 두려움을 주는 입장에 서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입니다.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인 이유는 유대인이 히틀러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었겠지만 오히려 히틀러가 자신의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라고 했습니다.

'나라가 죄가 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전 설교에서 죄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죄는 히브리어 페솨로 '반역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나라 안에

반역자들이 많으면'이라는 의미입니다.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반역자는 임금님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 악인의 또 다른 측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 공백은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을 등지고 이 세상을 향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주관자가 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자기 의지와 생각을 관철하고자합니다. 이렇게 주관자가 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타인을 통치하려하고 타인에게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면서 타인을 자신의 뜻대로 이끌려고 하는 이유도 두렵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니 타인을 지배해서라도 무언가를 얻겠다는 형태로 두려움이 표출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백성을 억압하는 통치는 모두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최근 남북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측근들을 숙청할 때에는 폭군으로 불렸습니다. 폭군은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자입니다. 그러나 정작 폭군 자신도 두려움에 쫓기는 자입니다. 숙청해야 할 만큼 두려웠던 것입니다.

3절을 봅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 같으니라'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 등장하는 '가난한'이라는 단어는 원문에서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뒤에 나온 가난한 자는 진짜 가난한 자입니다. 학대하는 가난한 자야말로 마음이 결핍된 상태입니다. 앞에 나온 학대당하는 가난한 자는 낮은 계층을 뜻합니다. 의역해보면 '높은 계층에 있으면서 마음의 결핍을 느끼는 자가 낮은 계층의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 같으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폭우는 가난한 사람의 먹을거리뿐만 아니라 부자나 임금님의 식량까지도 다 휩쓸고 내려갑니다. 결국 자신의 생존 근거조차 망가뜨리게 되리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결핍한 높은 계층의 사람은 앞서 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 공백이 하나님으로 차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차지 않았기에 터무니없는 믿음으로 낮은 계층의 사람들을 학대함으로써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요즘 재벌들의 갑질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CCTV영상에서 드러난 모습이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마치 발광하는 모습 같습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재벌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크기로 비어있는 마음을 재물이 채워주질 못합니다. 두려워하는 가운데 자신보다 취약한 계층의 사람을 보면 두려움은 그들에 대한 학대로 나타납니다.

4절에서는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라고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터무니없는 믿음으로 어처구니없는 미련함의 심리적 핵심은 두려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려움에 쫓겨서 하는 모든 행동은 율법에 반합니다. 율법은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행동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쫓겨서 나타나는 행동은 백이면 백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직업을 추구하게 됩니다. 직업이 있어야 기쁘고 만족할 것임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 바탕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직장을 찾아 들어가게 됩니다. 일견 당연하게 보이는 이 과정도 그 바탕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긋나 있습니다. 직장을 얻었으니 만족할 수 있을까요? 두려움으로 인한 결과로 직장을 얻었기에 오히려 직장을 얻기 전보다도 더한 스트레스에 놓이게 됩니다. 또 다른 상태로 도망을 쳐야만 합니다. 이번에는 성과를 얻어서 만족하려 하고 승진하여 만족하려고 합니다. 끝없이 도망을 가지만 하나님 뜻에 어긋난 행위이기에 만족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고 돌리실 수 있는 손잡이가 없는 삶입니다. 어처구니없는 삶에는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우선 직장이 있어야만 한다는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직장이 있어야만 될 것 같은 두려움은 속임수입니다. 마음의 두려움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이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의 방향을 따라 하늘로 향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체감할 수 있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나면 직장과 관계없이 마음에서 감사가 생겨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붙드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할지를 알려주십니다. 모두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두려움에 쫓겨서 하는 모든 행동들은 전부 하나님 뜻 밖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드시고 끌고 가실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처럼 두려움에 쫓겨서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과는 상관이 없는 것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계획을 이루실 수 없기에 몽둥이를 드시고 십자가를 향해 몰아가실 것입니다. 끝내 하나님을 소원하지 않는 자들은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기준의 형통은 결코 복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주에 버려지게 된 우주인의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서 생기는 두려움의 정체입니다.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할 자리에서 떠돌게 된 자아의식이 두려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은 우주에 버려졌다고 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의 생사여탈권을 쥔 산헤드린공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과 같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으로 채워졌을

때에 나타나는 사자와 같은 담대함입니다.
오늘 주어진 상황이 어떻든지 다른 상황을 찾아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이 상황은 여러분의 기쁨과 만족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십자가를 붙잡고 세상을 향한 마음을 죽여야 할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의 방향을 따라 하늘로 마음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으로 채워진 배부른 마음을 가질 때에 어디를 가든지 사자와 같은 담대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우주에 버려진 우주인의 두려움은 하나님 크기로 비어있는 마음 공백의 자아의식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하나님으로 채워짐을 경험하게 하시며,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다시는 도망가지 않고 사자처럼 담대히 맞이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